자기를 못 믿으면 자기일 누가 할까

☞ 19면에서 계속

몰록 놓을 수 있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그리고 제 아들놈에게 한마음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마음도 댁이 진짜 못 믿기 때문이에요. 댁의 육신은 보이는 물질의 모습이죠. 보이지 않는 자기 모습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진짜로 믿는다면 모든 거를, 잘못하는 게 보이면 잘못하는 거를 한데 모아서 똘똘 뭉쳐서 그냥 공 하나로 뭉쳐서 주인공에 딱 맡기면서 "당신만이 할 수 있어." 그러고는 편안한 거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발걸음이 자주 떼 놔질 수 있는데 그렇게 왜 못 믿습니까?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다면 자기 일들은 누가 합니까? 제3자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죠. 그러고 지혜가 있어야지 되겠죠.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가도 꼭 내가 반드시 사야 될 물건을 산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야 그 물건을 사옵니다. 그러니깐 급하면은 아드님의 이름 쓰고 다소 많든 적든 정성을 드려주고 모자라는 그릇을 채워라, 정성을 들여주고 자꾸 관 해주고 안으로나 바깥으로나 그렇게 해주신다면 오죽이나 잘 되겠습니까?

둘 아니게 될때 성불

▲질문자3: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우리 울산 시민들이 한마음공부와 인연이 닿을 수 있도록 마음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예. 우리 신도님들이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오고 감이 없이도 통신을 들을 수 있고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4: 저는 동국대를 다니고 있는 학인입니다. 제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동대 입학 후 혜찬스님과의 만남에서부터였습니다. 혜찬스님이 은연히 "주인공" 하는 그 말이 제 귓전에 닿을 때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생활하면서 주인공 도리에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1학년 여름방학 때 현대불교신문에 길을 묻는 이에게 라는 면을 빨간색 색연필로 줄을 그어가며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나면 꼭 법문을 들으러 가야지.' 하며 낸 마음이 오늘 이렇게 법을 청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 집안과 인연이 많아서인지 동진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 있는 모습과는 달리 제 마음은 항상 바깥 경계에만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껏 저는 부처와 중생을 둘로 보았습니다. 항상 부처님 전에 발원하기를 어떠한 장애가 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복덕 지혜를 갖춘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불을 할 수 없다면 업이라도 녹이려는 마음에 기도 도량을 다니면서 참회기도를 올렸습니다. 모든 사물이 오면 오는 대로 다 비춰주는 거울에 먼지가 앉고 또 앉고, 그 사물을 제대로 비쳐지지 못하는 것처럼 저의 본성 자리를 보려면 참회기도로써 제 업을 녹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해서 절에 돌아가게 되면 관음기도, 자비참 기도등 참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도 부처님의 마음에 제 마음을 계합하지 못하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도반스님들이 큰스님께 화두 타러 간다고 하면 나는 왜 그런 인연이 되지 않을까? 정말 나의 업식이 두터워서 그런 인연조차 오지 못하는 걸까? 전생에 공부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인가? 하고 망상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으로 법회에 참석하여 사진으로만 뵙던 스님의 용안을 직접 뵙고 법문을 들으면서 저의 의식들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환희심이란 세 글자 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날 밤 저는 많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동안 제 마음 속에 일어났던 답답함을 확연히 풀 수 있었고 알지 못했던 주인공도리를 관하게 되었으며 비록 일원상의 참 진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 자취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엔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일에 대해서도 저는 무심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요, 부드러운 말 한 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하고 그것을 의식 속에 눌러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 무심했던 마음이 이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돌려 좋게 통신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쓸 줄 아는 저를 보면서 흐뭇하게 웃은 적도 있었는데요.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속도로나 길을 가게 되면 포크레인이 산을 깎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 포크레인이 저를 깎고 있는 것 같이 마음이 너무 아파옴을 느끼고 또한 짐승들이 차에 실려 가는 모습을 봐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나무아미타불' 하며 염하게 되는데요. 이때 마음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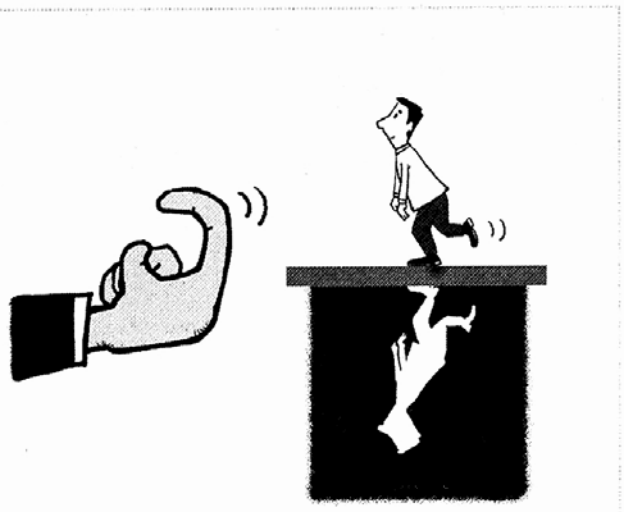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 한데 뭉쳐 놓으면 살기 편해

불성에 몽땅 맡겨 놔야 활발 자재

▲스님: 마음은 그게 백마리던지 천마리던지 상관이 없어. 그냥 한데 뭉치면 손아귀에 딱 그냥 쥐어져. 쥐어지면 자기가 관하고 있던 주인공에 그냥 팽개쳐 버려. 왜냐면 모든 짐승들도 불성이 다 있어. 불성이 있으니깐 공으로 뭉친다 하더라도 그 불성은 다 한데 합쳐져서 뭉쳐지거든. 그러니깐 던지면은 그냥 벗어나게 돼 있지. 그게 활활 벗어나. 불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길을 걸어도 걷지 못할 일이 없고, 그렇게 활활 벗게 돼.

좁쌀 세알이 삼천석

그러니깐 흰 죽 그릇에 빠져 몸을 막 벗듯이 그렇게 벗게 돼. 그러니까 딱 그냥 그렇게 해서 던지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각끔들 다 똑같이 있으니깐 말이야. 그렇게 해서 던져주면은 그 던져준 값어치가 세세생생에 그쪽으로 옮겨지곤서 함이 없이 한거야. 준 사이도 없고 한 사이도 없고, 너무 속도가 빨라서 빠른 사이도 없고 또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빠르다고 한 사이도 없어.

▲질문자4: 두 번째 질문은 혜찬스님과 마음도리를 얘기 할 땐 그것이 다 이해된 것 같고 받아들여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부딪쳐서는 분별하는 마음이 여전히 작용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믿고 맡겨라 하는 이 공부를 더 받들고 싶습니다.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스님: 진짜로 자기 불성을 믿는다면, 육신은 물질적인 모습이지 진짜 자기가 아냐. 자기가 아닌 고로 진짜 자기 불성을 믿어야 돼. 불성을 믿고 거기다가 놔야 되지. 거기다가 모든 거를 놓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놓을 때 다 그게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자기가 있고 또 그 속에 있는 거를 믿는다면 말이 안되잖아. 둘이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야지. 지금 모습 있는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야지 진짜 자기가 되지. 보이지 않는 자기는 진짜 자기가 되지.

▲질문자4: 법 받들어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그래, 그렇게 해 봐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든지 넓혀진 거래도 탁탁 쥐어서 그냥 던지게 되고, 해 보면은 큰 나무로 화할 꺼다.

하나로 해결할 거를 둘 셋을 가지고 하려니 힘들지.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질 않아. 그러니깐 예전에 좁쌀 3알갱이가 3천석이 됐다 그랬지, 그거야 바로, 우리가 없어서 그거를 해결을 못하거나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이 죽게 된 거를 해결을 못 한다거나, 차려 놓고 해야만 되는 게 아니거든. 법은 그래서 그냥 준엄하고 무섭고 함이 없이 하는 것이 일등이고, 또 내가 했다고 하지 않는 스님네들이 참 일등이야. 그리고 딴 사람들 꺼 일일이 앞뒤를 재보고 생각을 해주는 그 생각이 정말 중요해.

스님네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받았으면, 그냥 이유 없이 먹어치우면 안 된다고. 하다 못해 돈 한 꼬부랑챙이도, 금 요만큼도 또는 돈 받는 것도, 얼른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의 고통이야. 고통을 뭉쳐서 놓은 거야. 고통을 가져다주는 거야. 그러니깐 그 고통을 없애줘야 내 밥을 내가 내려 먹는 사람이라고, 고통을 없애주고 그 돈을 또 쓸 대다 써 줘야 그게 진짜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남이 돈 가져온 거 그냥 섣불리 봐서는 안 된다고. 그래 그것도 다 주인공에 놓고 해결을 해야 남을 줄 수 있지 덮어놓고 좋은 일 한다고 남을 줬다가는 안되지. 그 영가들이 거기 매달려 있으면 되나? 그러니깐 그 영가들을 다 좋게 해 주고 갈 자리를 가게 해 주고 난 뒤에야 그 돈이 종이 짝이 되는 거니깐 그때는 누구든 줘도 되지.

그래서 우리가 요 동안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세생생에 살면서, 예전에 어느 제자가 갔다오다 보니깐 자기 스님이 절 대들보에 얹혀 있더라는 거야. 얹혀 있어서 영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더란 얘기지. 그래서 자기 은사스님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큰 자박지에다가 흰죽을 그냥 하나 가득 쑤어서 그 밑에다 놓고는 주장자로 그냥 치면서 빨리 정신 차려서 나오라고 막 부르니까 그 때 훨썩 죽으로 떨어져서 그 몸뚱이는 갸버리고 은사스님이 나와서 그 즉시로 딴 동네에 좀 사는 집에 인도를 해서 어린애로 탄생을 하게 했다는 거지.

그래 자란 다음에 모셔다가 가르친 거야. 그 제자가. 그거를 말을 하자면은 중간에 말이 많겠지만 어린애 난 집에서 어린애 데려가는 것도 그래. 그런 사정 얘기를 하고선 데려간 거야. 데려다가 길러서 20살이 넘어서 30살이 근 가까워 왔는데 하루는, 자기 제자가 은사라고 자란 거지. 그래 이제 절을 하고 벌떡 일어나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너로구나!" 이러는 거야. 하하하 "너로구나!" 그러니깐 그때서야 "접니다." 그러고선 이젠 인사 받을 때가 됐군요, 하고선 제자하고 은사하고 맞절을 하고 "나도 너한테 절 한 사이가 없지만 스님을 가르친 새도 없습니다." 그러고선 헤어졌단 거지. 그렇게 제자가 은사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게 기가 막힌 일이지 뭐야. 생각해 보라구.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옛날에는 길을 가다보면은 천막처럼 널판지로 쳐놓고선 거기 들어앉아서는 나가질 않아요. 공부하느라고. 공부하는데 책도 없이 그 속에 들어가서 무슨 공부를 하겠어? 책이 마음속에 들었길래 공부를 하겠지.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그 널판지 밑에 요만큼 뚫어 놓고서 똥이 나오면은 거기서 천야만야한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깨달으면 그냥 널판지를 치고 나와서 소가 코가 뚫어졌다. 소가 코가 뚫어졌다. 하고는 뛰어나오더란 얘기지.

시주금은 사람들의 고통

전에 산에 다닐 때 얘기예요. 비가 오고 장마가 들면 개구리들이 그냥 그 울챙이를 골이 잡아 당겨서 위에다 놓느라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선 사람도 그렇게 보이더라고. 사람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개구리같이 안 보이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 전체가 개구리로 보이는 거 있죠. 하하하. 그래서 그런 거로구나. 모두가 산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크나 작으나 다 공생이로구나. 그런 걸 알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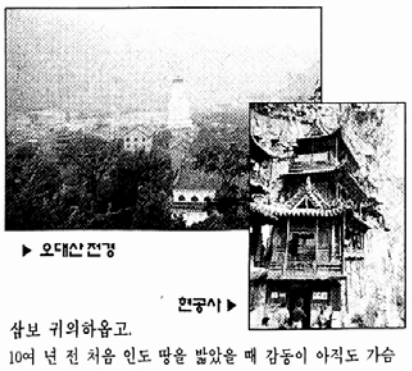
공생으로 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영령들은 다 의식이 돌변해서 들어가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그 의식들이 불성을 싸고 있거든. 그러면은 그 의식들이 잘못하면 배척을 하고 의식들이 그냥 야단나는 거지. 그래서 의식도 생각지 마라. 이것저것 생각을 해서 벌려 놓지 마라이 소리야. 이것저것 벌려 놓고 겁내고 무서워하지 마라. 오직 한군데 넣고 한군데서 꺼내고 한군데 넣고 한군데서 꺼내고, 꺼내고 들이고 꺼내고 들이고 하는 거를 꼭 한군데서만 해라.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조차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길 하는 거지.

이젠 그만해도 여러분이 이 소리만 잘 듣고선 그대로만 해나간다면 정말 일류가는 부자가 될 것이고, 하늘과 땅 사이에 나가지 못할 일이 없고 죽고 사는 것도 없을 테니 참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법문은 2001년 6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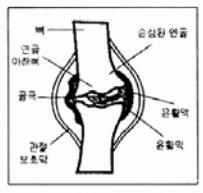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주)성산항공여행사 개업16주년기념
중국 오대산. 화엄사. 운강석굴 성지순례 5일
■순례 경비 : 69만원
■순례 기간 : 2001. 7월 30일 ~ 2001. 8월 3일(5일간)
■신청 기간 : 2001. 7월 15일까지
문수보살께서 현신 하신 청량산 오대산과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운강석굴, 화엄사,현공사까지 직항편으로 알차게 모십니다.

운강석굴 ▲

▶ 오대산 전경
현공사 ▶
삼보 귀의하옵고.
10여 년 전 처음 인도 땅을 밟았을 때 감동이 아직도 가슴 벅차게 남아있습니다.
첫 성지순례를 모셨던 그 정신으로 그간 많은 도움을 주신 더 높으신 스님과 신심 있는 불자님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성산항공여행사 대표 이규술 합장 -
■성지 순례 일정

1일 (7/30)	인천 / 태원(1박)
2일 (7/31)	태원 / 진사, 쌍탑사 - 오대산(1박) / 불광사, 남선사
3일 (8/1)	현공사, 대동(1박) / 운강석굴, 상,하 화엄사, 구룡벽
4일 (8/2)	오대산(1박), 남산사, 현통사, 탑원사, 라후사, 보살정(대문수사), 남대
5일 (8/3)	오대산 / 용천사, 금각사 태원 / 산서성박물관 - 인천(21:00) - 전 일정 호텔투숙 -

포함사항 : 항공, 호텔, 입장료, 식사, 중국비자비, 중국공항세, 보험료
※ 불 포 함 : 인천 공항세
· 구 비 서 류 : 여권/자택주소/전화번호
· 여권없는분 : 여권용사진 2매, 주민등록증, 주민등본 1매, 여권인지대 45,000
꽃협 찬 : 중국 산서성여유국
꽃후 원 : 오대산 상원사,무주안국사,해남 대둔사 영추사,본원정사,심곡사,관음정사,영산법화사
문의 : (주)성산항공여행사
대표 : 02) 720-0111
담당 : 이규술 팀장 011-274-0355
김승현 과장 011-440-2580
E-mail : tour Love@kornet.net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솝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닭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비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들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회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청동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탱화 탁자
청동불상제작전문
주 · 아 산업개발
성화불교전시관 · 성화불교미술원
서울시 중랑구 망우 1동 133-33 태창빌딩 1층
■ 전시관 : 02)2209-0080, 0081
■ 공 장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